

5분 영상 테스트

<https://youtu.be/S95n7il1wPQ?si=WkbFC2lde0ktlX4K> - 테스트 영상 출처

실행 결과 :

[TEXT] 인식된 문장: 아침부터 세천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허름한 초가집에서 삭바느질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이 방 안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참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그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귀를 기울이자 요상한 쇠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바느질 하다 말고 조용히 방문을 연체 그 소리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뒷마당에 도착한 그녀는 빗물로 인해 갯나무 미치 깊이 패어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침부터 재수없기 싫어. 그녀는 비를 맞으며 갯나무 미치를 해집자 웬 쇠항아리 한개가 딱하니 묻혀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지? 이 항아리는? 여인은 궁금해서 얼른 손으로 땅을 파내고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마침 뚜껑을 여는 순간 그녀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뜻밖에도 항아리 속에는 황금빛이 감도는 금두껍이 한 마리가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정도면 온 식구가 평생 놓고 먹고도 남을 만큼 밥 비싸 보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온 횡재에 여인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행운이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 금두껍이를 어떻게 하지? 순간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봤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논란 가슴을 움켜지고 누가 보이שר라쥬도 새도 모르게 땅을 더욱 깊이 파고서는 쇠 항아리를 다시금 감추었습니다. 뒤뜨래서 금두껍이를 숨기고 나오는데 갑자기 옆집사는 숙인회가 그녀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비 오는 날 뒤뜨래서 뭐 하는거? 어, 아니, 비설거지를 좀 하느라고. 그래, 근데 손에는 원흠이 그린 무든거. 여인은 순간 깜짝 놀라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어,아니요. 뒤뜨래 잡초를 좀 뽑느라 그런거? 숙인회가 집으로 돌아간 뒤 여인은 여전히 불안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잠을 아무리 청하려고 해도 금두껍이가 머릿속에 아른거려 도저히 잠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금두껍이를 숨겨놨을까? 오만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 덧 날이 밝아왔습니다. 여인은 이후로도 온통 금두껍이 생각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반흐질할 때도 날품미를 할 때도 금덩이를 누가 훔쳐갈까 봐 불안해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불연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금두껍이가 천하의 요모리구 멀... 그마저나 저 금두껍이를 내가 가져도 될까? 여러 날 앞만 생각해도 해답을 찾기는 어려웠으나 분명한 건 저 금두껍이로 인해 불안하고 두렵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인은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올 거니... 분명 저 금두껍이는 독보소실게요. 먹는 순간 골로 가는 거지. 안 만 세상에 절대 공자는 없는 법이지. 사실 여인은 하늘의 복을 타고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녀의 삶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비록 양가집 규수로 자랐으나 어릴 때 집은 풍비박산이 났고 어렵게 혼인하고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셈만 덩그러니 남겨져 그녀 혼자서 곤궁한 삶을 이끌며 삭바느질부터 시작해 날품까지 팔아가며 겨우 생계를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솔직히 그녀는 이제 저 금두껍이만 있으면 삶 걱정하지 않고 편히 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여인은 혼자서 몰래 쇠항아리를 다시 파내었습니다. 그리고는 금두껍이를 보자기에 감싼 뒤 이를 들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달아온 그녀는 보자기를 풀더니 느닷없이 금두껍이를 들어 깊은 강에 내던져버렸습니다. 어느 덧 세월이흘러 큰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고 이어 동생들까지 벼들 길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새 아들을 안쳐놓고 항아리 이야기를 꺼냈습니

다. 금두껍이는 천하의 요물이었지. 지금 생각해봐도 그 금두껍이를 강가에 내던져버린 것은 아주 잘한 일이었던다. 어머니, 하지만그때 그 금두껍이만 가지고 있었다면 온 식구가 고생도 하지 않고 훨씬 수월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요. 동생의 무릎에 어머니는 입가에 미소를 띄며 대답했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안 탄다. 노력없이 얻은 재물은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는 법이지. 만약 우리 가족에 그 돈으로 풍족함을 누렸다면 너희들은 지금처럼 과거에 급제하려 애쓰지 않았을 게야. 나도 금두껍이를 발견한 순간 한동안은 그 금덩이에 홀려 있었단다. 허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보니 황금이 독버섯으로 보이더구나. 어머니의 말에 자식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 지해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뜻밖의 횡재를 조심하라. 횡재는 갑작스레 재물이 들어오는 상황을 말합니다. 노력없이 얻은 재물은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시기, 질투를 동반하게 마련이며 이는 다른 사람들의 분노로 이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재물이 똑 떨어진다면 반드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그 재물이 뜻밖의 횡액으로 변할 수도있음을 말입니다. 노자의 말처럼 복은 화 속에 엮드려 있고 화는 복에 기대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곤림이었습니다.

[EMOTION] 예측 감정: 슬픔(우울한) (score: 0.20)

소요 시간

- 음성에서 텍스트 분석 : 3:09:18
- 텍스트에서 감정 분석 : 00:01.65

whisper base 사이즈로 했을 때는 대략 50초정도 소모됐는데 리눅스에서 whisper small 사이즈로 업그레이드 해서 돌리니까 오히려 시간이 더 소모된다 이유가 뭐지;; 윈도우는 1분 이내로 잘 돌아감.